

2022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
성경의 핵심

메시지 14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우리의 운명을 이루기 위해
사랑의 법인 생명의 영의 법 안에서 생활함

성경: 롬 8:2, 28-29, 갈 6:2-3, 요 13:34, 요일 4:16-21, 고전 8:1, 13:4-8 상, 13

- I.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심으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우리를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의도이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해 그분이 ‘인화(人化)’되시고 우리는 ‘신화(神化)’되게 하는 것이다.
- A.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사시는 생활이다 — 영한동번 찬송가 403 장, 롬 8:2.
 - B. 우리는 약하고, 억압받고, 뒤로 물러났다고 느낄 때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럴 때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운행하여 우리를 소생시킬 것이다 — 시 62:8, 렘 17:7-8, 시 80:1, 3, 7, 18-19.
 - C. 생명의 영의 내주하는 법은 우리에게 ‘약혼반지’인 도장 찍으시는 영이시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약혼했다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께 점유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 고후 11:2, 눅 15:22, 엡 1:13, 4:30.
 - D. 삼일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영, 곧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생명의 영의 법이 되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셨다. 그분은 지금 우리 존재의 세 부분 전체에 생명(헬, 조에)이신 그분 자신을 주시기 위해 자동적인 원칙과 자연스러운 능력으로서 우리 속에 계신다 — 요 6:63, 14:6 상, 10:10 하, 롬 8:2, 10, 6, 11.
- II.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롬 8:28-29.
- A. 로마서 8 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의 존재의 세 부분에 생명을 주시는 것과 관련된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유일한 기능은 조에, 곧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 고후 3:6.
 - 1. 만아들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의 대량 재생산을 위한 원형, 표준 모형이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분의 몸을 조성하는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다 — 롬 8:29, 엡 4:20-21.
 - 2. 하나님께서 이 원형을 대량 재생산하시는 길은 그분의 살아 있는 원형, 곧 만아들을 우리의 전 존재 안으로 일해 넣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놀라운 원형과 협력하고 그분께 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분 안으로 확산되실 것이다 — 엡 3:16-21.
 - B. 그 영은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셔서 모든 사람과 모든 일과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을 이루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8 절의 ‘선’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얻는 것, 즉 그분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더 일해 넣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한다 — 렘 48:11, 고후 2:15, 아 4:16.

- C.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며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일의 목표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향하여 하기 위해 부활 안에 있는 우리의 신성한 생명이신 그분을 취함으로 그리스도라는 틀 안으로 넣어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 롬 8:29, 엡 1:4-5, 4:20-21, 롬 11:36.
- D. 우리가 그분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에 동참하며,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소유하고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구체화된다.
 - 1.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있어서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성숙되는 것은 우리를 바꾸는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 고후 3:18, 히 6:1 상, 골 1:28-29.
 - 2. 생명의 성숙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문제이고 축복은 생명의 흘러넘침, 곧 생명의 성숙을 통해 하나님이 넘쳐흐르시는 것이다.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고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 민 6:22-27, 고후 13:14, 벧전 3:8-9.
- E.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내주하시는 생명의 영의 법은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입하며, 우리를 ‘그리스도화’ 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움직여 우리를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든다.
- F. 어떤 사람이 조에, 곧 신성한 생명을 누리고 체험하는지의 여부는 신성한 생명의 나타남으로 알 수 있다 — 비교 민 6:6-9.
 - 1.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읽기 위해 그들의 생각을 사용하지만 그들이 듣고 읽는 것은 다만 그들이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곧 다른 이들을 비난하기 위한 도구가 될 뿐, 그들 자신은 조금도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주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닫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데 전문가들이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상태에 관해서는 잘 알지만 그들 자신의 상태에 관해서는 전혀 모른다. 이것은 그들이 완전히 어둠 안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 3. 우리가 집회에서 건강하고 합당한 메시지를 듣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 안에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죽음이 있는가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기쁨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이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우리가 메시지에 대해 속으로 질문하며 따진다면 이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듣는 사람들의 생각 안에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죽음이 있는가의 여부는 말을 하는 사람의 영을 공급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 4.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할 때에는 비록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더라도 우리라는 존재가 생명을 표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이다 — 요일 5:16 상.

III. 생명의 영의 법은 사랑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이다 — 롬 8:2, 갈 6:2, 요 13:34.

- A.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을 주입하시고 사랑을 산출하셨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다 — 요일 4:19-21.
- B. 고린도전서 13 장에서 바울이 묘사한 사랑은 신성한 사랑의 표현이다(고전 13:4-8 상), 더 나아가 그 사랑이 그 영의 열매라는 사실은 사랑의 실질이 그 영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가리킨다(갈 5:22).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말은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제금과 같다. 그것은 생명이 없이 소리만 낸다(고전 13:1).
- C.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으며,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보다 오래 남아 있고, 가장 크다 — 고전 13:4-8 상, 13.
- D. 사랑의 법은 생명의 법에 의해 실질화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영 안에서 그 영을 따라 행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서로의 무거운 짐을 질 수 있게 될 것이다(갈 6:2, 5:16, 25). 그러나 우리가 교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 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된 것으로 생각하여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이다(갈 6:3).

- E. 우리 속에서 사랑의 법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자동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목양하고 찾는 영을 가진 목자들이 되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다 — 요 21:15-17, 눅 15:1-7.
- F. 우리 속에서 사랑의 법이 활성화될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사랑의 수고(고전 15:58, 살전 1:3-4)가 되며, 그러한 사랑의 수고 안에서 우리는 ‘약한 이를 도와주고’(행 20:35),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한다’(살전 5:14). ‘약한 사람’은 영이나 혼이나 몸이 약한 사람,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가리킨다(롬 14:1, 15:1).
- G.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고 그분이 지금 우리의 생명인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사랑의 생명을 살고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요일 3:14, 5:1, 2:6, 4:17.
- H.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에 εμπ몰되어 밀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신성한 사랑은 거센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그분을 사랑하도록 강권한다 — 고후 5:14.
- I. 형제 사랑에 관한 계명은 옛 계명이면서 또 새 계명이기도 하다. 옛 계명인 이유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계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새 계명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때에 이 계명은 새로운 서광으로 비치고, 그 후에도 새로운 빛과 신선한 능력으로 계속해서 비쳐 주기 때문이다 — 요일 2:7-8, 3:11, 23, 비교, 요 13:34.
- J. 교회 생활은 형제 사랑의 생활(요일 4:7-8, 요이 5-6, 요 15:12, 17, 계 3:7, 엡 5:2, 비교 유 12 상)이고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엡 4:16).
- K.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거듭난 영은 사랑의 영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의 하락을 정복하기 위해 불타는 사랑의 영이 필요하다 — 딤후 1:6-7, 롬 12:11.
- L.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우리는 사역의 메시지들을 듣고 나서 단지 지식을 가지고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고전 8:1 하, 비교 고후 3:6).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표시이다(요 13:34-35).
- M.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은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과 대조된다 — 요삼 9.
 1. 주님의 일에서 경쟁하는 것은 야심의 징후만이 아니라 교만의 징후이기도 하다. 우리의 역량과 성공과 온전함과 미덕을 언급하는 것은 교만을 아무렇게나 드러내는 것이다.
 2.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의 또 다른 형태이다(롬 12:3).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헛된 영광을 열망하는 것은 모두 교만의 추하고 비열한 표현이다(갈 5:25-26).
- N.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혼 생명을 버리시어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갖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몸의 생활의 실행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우리의 혼 생명을 잃고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 요일 3:16, 요 10:11, 17-18, 15:13, 엡 4:15-16, 29-5:2, 고후 3:6, 4:12-13, 12:15, 롬 12:9-13.
- O.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혼 생명을 잃어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취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오락과 즐거움과 행복이 되어야 한다 — 요일 2:15-17, 마 16:25-26, 시 36:8-9, 비교 딤후 3:4.
- P. 교회 생활 안에서 형제 사랑은 자기를 위하는 목적이나 외적인 자기 과시가 전혀 없이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돌볼 때 실질적으로 표현된다. 가난한 성도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줄 때 주님의 사랑을 지닌 생명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 흐르고 그들 안으로 주입된다 — 요일 3:17-18, 마 6:1-4, 롬 12:13, 고후 8:1-7.
- Q.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습관적으로 사랑함으로 사랑 안에 머물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큰 뜻을 이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 형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다 — 요일 4:16-18, 고후 5:9-11, 마 25:21.
- R.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해 우리가 어떤 것이 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사랑이 가장 탁월한 길이다 — 고전 12:31 하—13:8 상.